

# 근대계몽기 세계지리 교과서 『小學萬國地誌』의 내용체계와 서술방식

강창숙\*

## The Contents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Style of World Geography Textbook 『小學萬國地誌』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Kang, Chang-Sook\*

**요약**: 근대계몽기(1894~1910)에 『만국지지』라 불리는 세계지리서들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리적 지식으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국가관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1895년 근대식 학제에 의거하여 학부에서 공식 편찬한 『소학만국지지』는 1권으로 편집된 근대계몽기 초기의 세계지리 교과서이다. 이에 『소학만국지지』가 갖은 의미와 영향을 구체적인 내용체계와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소학만국지지』의 내용체계는 세계를 대륙, 국가, 지역의 규모로 구분하고, 6편의 지지를 자연지리에서 인문지리의 순서로 서술하면서, 지역을 비교하거나, 지리적 현상의 인과관계를 서술하는 근대적 지리로 구성되었다. 국한문 혼용체로 서술된 이 책의 문체와 문자 그리고 편집 체계상의 변화는, 세계 각 지역의 지명에 대한 한글 표기, 서양 근대 지식의 적극적인 수용, 근대적 지리적 지식의 대중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소학만국지지』는 당시의 세계를 사회진화론과 계몽주의,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복합적 이데올로기로 견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중국 중심에서 근대적 세계관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소학만국지지, 세계지리 교과서, 근대적 지지, 내용체계, 서술방식.

**Abstract**: Books on world geography, so called 『萬國地誌』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changing Koreans' views of the world and the n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w world geographical knowledge during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1894~1910). 『小學萬國地誌』 was published in 1895 by Hakbu as an early world geography textbook. This study sought to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influence of 『小學萬國地誌』 by focusing on its contents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styl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six regional contents organization adopted the modern regional geographical method by regional scale classification, describing the human geography based on the physical geography, compa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or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the nature. In addition, this textbook was written using the kukhanmun style that displays several characteristics of modern printing culture. Many geographical names were written in Korean characters and geographical knowledge was accepted actively from the modern world, subsequently contributing to the generalization of geographical knowledge. This textbook led to the transition of the Koreans' worldview from a China-centric focus by providing practical and specific knowledge about the world, toward the Korean modernization based on the multiple ideologies of social Darwinism and the advent of enlightenment, imperialism and nationalism.

**Key Words**: sohakmangukiji, world geography textbook, modern regional geography, contents organization, description style.

### 1. 서론

오늘을 잉태한 기원의 시공간으로서 근대계몽기 가 우리나라 근대 개혁에 미친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변혁의 중심에는 지리교육이 있었다. 근대 개혁의 출발점인 1894년 갑오개혁부터 1910년 한일강제합병이 이루어지는 짧은 시기 중에 당

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이른바 『萬國地誌』라 불리는 세계지리 교과서들이다(강창숙, 2013).<sup>1)</sup> 이들 세계지리 교과서들은 매우 복잡적이며 급진적인 사회변혁의 논리를 제시했으며, 세계에 관한 새로운 지리적 지식으로 대중을 계몽하였다.

오늘날을 세계화에 의한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gaia2004@cbnu.ac.kr)

한다면, 구한말은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적자생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국제정세는 국가 간에도, 생물집단에서와 같은 약육강식이나 우생열패의 생존법칙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교육’을 진흥하고, ‘식산’을 흥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국제적 생존경쟁에서 승리하고 국가의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교육을 강조하였으며(강순돌, 2005), 특히 지리와 역사 교육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개화기 지식인들에게 신지식의 보급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되었으며, 신식 교과서의 저술과 보급은 신문, 잡지, 신서적의 발행과 함께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근대적 지평을 소개하고 확장시킨 교과서, 신문, 잡지, 학보 등의 근대적 인쇄매체 중에서도 교과서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신문과 잡지 등은 비대면적 관계에서 텍스트의 의미는 독자의 관심과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의 대면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기본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매우 공식적이며 표준적인 해석을 위해 만들어진다. 점에서 구별되는 위치에 있으며(김영훈, 2010), 그 중에서도 『소학만국지지』와 같은 세계지리 교과서의 역할과 영향력은 특별한 것이었다(김봉희, 2006 참조).

1895년 2월 고종의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되면서 근대식 학제가 마련되고, 4월에는 관계개혁으로 설치된 학부아문이 학부로 개칭되었다. 학부는 근대적인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새로운 교과서 및 교육 도서를 편집·번역·검정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되었다. 학부편찬국에서는 새로운 학제에 따른 세계지리 교과서로 『소학만국지지』와 『중등만국지지』 등을 편찬, 발행하였다.<sup>2)</sup>

이 책들은 초등 및 중등학교 지리교과서로서 출판되었지만, 당시 외국문물에 어둠던 일반인들에게도 신학문으로 임혀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의 개화와 국민 계몽에 크게 공헌하였을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권혁재, 1976). 지리학이나 지리교육학적 관점에서 근대계몽기 세계지리 교과서나 세계지리서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학만국지지』에 대

한 내용은 이들 연구의 일부(이찬, 1968; 장보용, 1970; 권혁재, 1976; 서태열, 2013)에서 간략한 서지 정보나 출판과정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지리교육 밖에서는 개화기의 세계지리서에 담긴 지명들에 대한 연구(이지영, 2008)에서 분석 대상의 일부로 논의되었다.

『소학만국지지』는 1895년 한문으로 번역, 발간한 헐버트(H.B. Hulbert)의 『사민필지』, 오홍묵의 한문체 『여재촬요』와 더불어 국한문 혼용체로 간행된 우리나라 근대 초기의 세계지리 교과서이다. 또한 같은 해에 먼저 발간된 『조선지지』와 교육과정상 연계된 교과서이면서, 1902년 학부편찬국에서 편찬한 『중등만국지지』와도 연계되는 교과서이다. 무엇보다 『소학만국지지』는 1906년 일제통감부가 ‘보통학교령’(칙령 44호, 8.27)을 제정, 공포하여 학제를 개정하고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줄이는 동시에 심상과와 고등과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일제의 식민 지배를 위한 본격적인 간섭으로 각종 학교의 지리교육이 위축되던 시기(장보용, 1970) 이전에 근대적 학제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발간된 초등 학교용 지리교과서이다.

근대계몽기 지리교과서나 지리학에 대한 연구가 갖는 의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지만(남상준, 1988),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대성의 기원을 탐사하는 연구들은 근대지식의 수용과정과 한국 근대성의 기원을 밝히는 데 근대계몽기 지리교과서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이지영, 2008; 홍순애, 2009; 김영훈, 2010). 비록 일본을 통한 근대 지리적 지식의 수용이었고, 적이자 시대적 갈망의 대상이었던 일본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었지만(김영훈, 2010), 번역 저본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취사선택한 내용으로 서술되었다.<sup>3)</sup>

근대 지리교과서와 지리서들이 갖는 의미와 영향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리사상사나 지리교육 연구에서는 외면 받았다. 그 이유는 이 책들은 독창성이 결여되었거나 표절에 해당되기 때문이었지만, 최근에는 지식 생산과 창출이 아닌 지식 소비의 문화사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주목하게 되었다(Mayhew, 2000; Withers, 2006; 권정화, 2013에서 재인용).

무엇보다 일본의 제국주의 사상이나 식민 침탈의 야욕을 적극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책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근대 지리교육의 기본적인 이해의 대상으로 설명되고 탐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 초기의 학제를 배경으로 학부편 집국에서 소학교용 지리교과서로 공식 편찬한 세계지리 교과서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국가관 변화에 강한 영향을 주었던 『소학만국지지』의 구체적인 내용체계와 서술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발간 당시의 시대적 요청과 지리교육적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2. 『소학만국지지』의 편찬 배경과 내용체계

### 1) 『소학만국지지』의 편찬 배경과 구성

『소학만국지지』는 표지와 속표지, 만국지지서, 소학만국지지목록, 만국지지총론, 6편의 각 지역별 지지로 구성된 1권의 책으로 지도나 삽화는 없다 (그림 1과 표 1 참고).<sup>4)</sup>

〈그림 1〉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古 4700-3)의 속표지, 서문, 총론의 일부이다.<sup>5)</sup> 속표지에는 편찬년도와 편찬 처가 기록되어 있다. 가운데는 당시의 학부대신 이완용이 한문으로 쓴 서문이며 아래에는 이완가도서의 인장이 찍혀있다. 오른쪽은 총론 첫머리로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 있다.<sup>6)</sup>

『소학만국지지』 편찬의 배경이나 목적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소학교교칙대강 제6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5년 7월 칙령 145호로 제정된 ‘소학교령’은 소학교의 수업연한을 심상과(3년)와 고등과(2년 또는 3년)로 나누었다. 심상과의 경우 본국지리가 선택과목, 고등과의 경우 본국지리가 필수, 외국지리가 선택과목이었다. 동년 8월 12일 학부령 제3호로 공포된 ‘소학교교칙대강’ 제6조에 교과목의 목표와 함께 지도상의 유의점이라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남상준, 1988).

“第六條 本國地理及外國地理는本國地理及外國地理의大要를授호야其生活에關호는重要호事項을理解케호고兼호야愛國호는精神을養호음을要호로호음.

教科에本國地理를加호는時에는鄉土의地形方位等과兒童의日常目擊호는事物에就호야端緒를開호고漸進호는되호로本邦地形氣候와著名호는都會와人民의生業等の概略을授호고地球의形狀과水陸의分別과其他兒童의理解호기易호고重要호는事項을知게호음可호음.

高等科에는本國地理는前項에準호야稍詳히授호고다시地球의運動과晝夜四時의原由를解케호고外國地理는大洋大洲 五帶의分別과各大洲의地形氣候와產物人種과及日本支那와本邦의關係에重要호는諸國地理의概略을授호음.

地理를授호음이實地의觀察에基호고正地球儀와地圖寫真等을示호고兒童의熱知호는事로比較호야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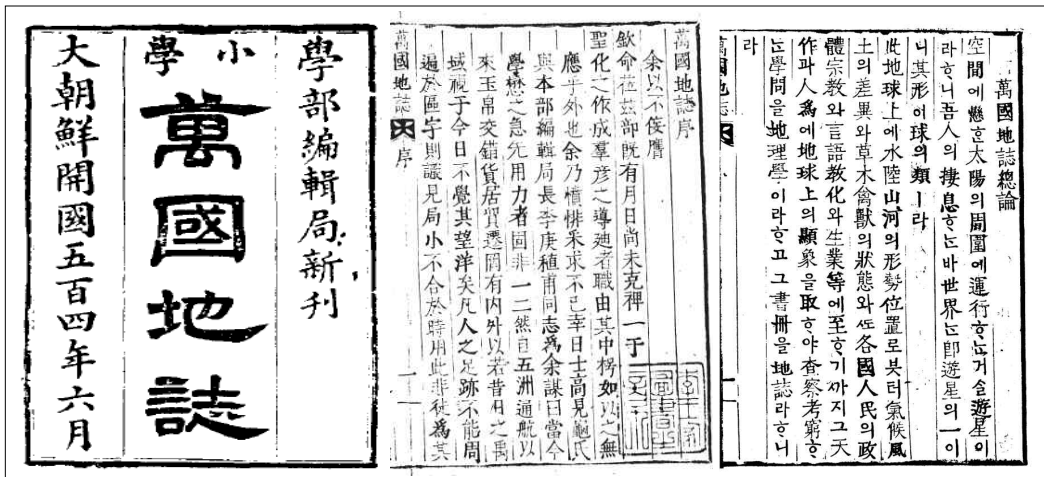


그림 1. 소학만국지지의 속표지, 서문, 총론

표 1. '목차'의 순서와 목록

구분	목 록	실제 서술 지역
第一篇 亞細亞洲十六國	朝鮮·日本·支那·亞細亞魯西亞·西土耳其斯坦·亞細亞土耳其·亞刺伯·波斯·阿富汗·皮路其斯坦·印度·緬甸·暹羅·佛領交趾·東蒲寨·安南	16개 국가
第二篇 亞弗利加洲八國	土耳其管割·英國領·佛國領·日耳曼領·葡國領·西班牙領·獨立諸那·獨立地方	31개 국가와 지역
第三篇 歐羅巴洲十八國	弗列顛諸島·瑞典諾威·丁抹·荷蘭·百耳義·佛蘭西·西班牙·葡萄牙·瑞西·伊太利·土耳其·羅馬尼亞·塞爾維亞·門斗尼骨·希臘·露西亞·日耳曼·奧地利	18개 국가
第四篇 北亞米利加洲十一國	哥里蘭·加奈太·新著大島·北米合衆國·墨西哥·英領閩都拉斯·瓜地馬拉·閩都拉斯·三薩瓦多·尼加拉瓜·哥斯德里加	16개 국가와 지역
第五篇 南亞米利加洲十一國	哥倫比亞·委內瑞拉·巴西·幾亞那·厄瓜多·秘露·玻里比亞·智利·알첸틴共和國·巴拉圭·烏兒圭·호굴난드諸島	12개 국가와 지역
第六篇 阿西亞尼亞洲	馬來群島·濠太利亞群島·波里尼西亞群島	6개 국가와 지역

實知識을得케 하고또항상歷史的事實에連結케 함을要함.”

즉, 소학교교과책대강에서는 “본국지리와 외국지리는, ① 본국지리에 이어 외국지리의 대강의 요점을 가르쳐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게 하고, 이와 함께 애국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며, ② 본국지리는 향토의 지형, 방위 등과 아동이 일상적으로 목격하는 사물의 단서를 설명하고, 점진적으로 본국의 지형, 기후와 저명한 도회, 인민의 생업 등의 개략을 가르치며, 지구의 형상과 수륙의 분별, 기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중요한 사항들을 알게 하도록 한다. ③ 고등과에서 본국지리는 전항에 준하여 자세히 가르치고 다시 지구의 운동과 밤낮, 시간 흐름의 원인과 이유를 깨닫게 하고, ④ 외국지리는 대양, 대주, 오대의 분별과 각 대주의 지형, 기후와 산물, 인종과 더불어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의 관계에 중요한 여러 나라지리의 개략을 가르친다. ⑤ 지리를 가르침은 실제 지역의 관찰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또 지구의와 지도, 사진 등을 제시하여 아동이 적극적으로 비교하여 확실한 지식을 얻게 하고 또 항상 역사의 사실에 연결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소학만국지지』는 ‘본국지리에 이어 외국지리의 대강의 요점을 가르쳐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게 하고, 이와 함께 애국정신

을 함양하도록 하며’, ‘대양, 대주, 오대의 분별과 각 대주의 지형, 기후와 산물, 인종과 더불어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의 관계에 중요한 여러 나라지리의 개략을 가르치기’ 위해 학부에서 새 학제의 실행을 위해 서둘러 편찬, 발행한 세계지리 교과서이다. 무엇보다도 『소학만국지지』는 이 책의 총론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범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구를 인식하고, 범 세계적인 관점에서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자연지리(천작)와 인문지리(인위)적 현상을 탐구하는 지리학’을 통해서 애국심을 함양하고 부국자강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 반영된 세계지리 교과서이다.

이완용의 서문에 의하면, 학부 편집국장인 이경직이 세계지리서의 편집에 대한 건의를 했으며, 일본인 高見龜에게 번역을 위촉하고 그 번역본에 의거하여 이 책이 편집, 발간되었다.<sup>7)</sup> 『소학만국지지』는 1908년 교과용 도서 검정 규정 발표 이후 급서로 지정되기 전까지 당시의 조선지리와 함께 지리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장보웅, 1970).<sup>8)</sup>

‘목차’의 제1편에서 제5편까지는 각 대륙별로 서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지역의 수를 제목에 포함하고 있지만(표 1), 실제 서술 지역은 그보다 많은 100여개 정도이고 서술 지역의 순서나 지명 표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sup>9)</sup> 예를 들면, 제4편의 북아메리카주 11국의 목차에서는 ‘묵서가

(멕시코) 다음에 ‘영령평도랍사(영국령온두라스)’ 등 6개 지역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서술에서 이들 지역은 ‘중앙아메리카’로 통합, 분류되어 서술되고 있다. 목차에서 제시되지 않은 ‘서인도제도’와 ‘파푸다제도(버뮤다제도)’가 추가 서술되고 있다. 또한 제1편의 ‘아세아주 16국’ 목차의 서도 이기사탄은 실제 서술에서는 토이기사탄(투르키스탄)으로 서술되는 등, 지명이 다르게 서술된 경우도 있다(표 2). ‘목차’에서 각 대륙과 국가의 지명은 한자로 서술되어 있으나, 제5편의 남아메리카 11개국 중에서 ‘알젠티共和國’과 ‘호굴난드諸島’는 한글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 2) 『소학만국지지』의 내용체계와 각 대륙별 지지의 주요 내용

『소학만국지지』의 내용체계는 크게 ‘총론’과 6편의 각 지역별 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3페이지에 걸쳐 서술되고 있는 총론의 서두에서는 구(球)형태의 지구와 지동설을 설명하고 지리학과 지지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지구의 표면을 대륙과 대양으로 구분하고, 6대주(아시아, 구라파,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서 나타나는 각 지형(섬, 반도, 해협, 지협, 산악, 평야, 계곡, 구릉, 대지, 사막, 분화산 등)과 5대양(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양, 남극양)과 ‘海’의 의미, 해저 지형(만, 곡해, 해협, 해분 등)과 지표수와 관련하여 ‘湖’, ‘河’, ‘泉源’, ‘河口’ 등의 의미를 구분, 정의하고 설명한다. 그리고 지구의 면적(1억4천5백만 방리)과 인구(1억4천5백만)를 제시하면서, 5종의 인종(코카서스인종, 몽고인종, 말레이인종, 아프리카인종, 아메리카인종), 2종의 정부체제(군주정체: 전제정체와 입헌정체, 공화정체: 귀현정체와 민주정체) 등의 의미를 구분, 정의하고 설명한다.

이렇게 ‘총론’에서는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지리학의 탐구 대상과 각각의 지리적 의미를 정의하고 설명함으로써 각 지역별 지지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기본 지식을 기술하고 있다. 주로 지형 중심의 자연지리적 내용에 치중하고 인문지리 부분은 인종과 정체에 한정되고 있지만 실제 서술에서는 위치, 기후, 수도 및 대도회, 국민(인민),

종교, 물산 등이 주요 내용으로 서술된다. 총론의 서두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리학과 지지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空間에懸호太陽의周圍에運行호는거슬遊星이라호니吾人の棲息호는바世界는卽遊星의一이니基形이球의類다. 比地球上에水陸山河의形勢位置로부터氣候風土의差異와草木禽獸의形態와또各國人民의政體宗教와言語教化와生業등에至호기까지그天作과人爲에地球上의顯象을取호야查察考窮호는學問을地理學이라호고그書冊을地誌라호니라……(이하 생략).”

“공간에 달려있는 태양의 주위에 운행하는 것을 유성이라 하니 내가 인식하는 바, 세계는 즉, 유성의 하나이니 그 형이 구의 종류이다. 이 지구상에 수륙산하의 형세와 위치로부터 기후풍토의 차이와 식물과 동물의 상태와 또 각국 인민의 정제, 종교, 언어, 교육, 생업 등에 이르기까지 그 천작과 인위에 지구상의 현상을 취하여 사찰고궁하는 학문을 지리학이라 하고 그 서책을 지지라 한다.”

즉, ‘총론’의 서두에서는 각 지역의 지형, 기후, 식생 등 자연환경과 정제, 종교, 언어 등의 인문환경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천작’과 ‘인위’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지리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세계관으로 대표되는 소중화사상 내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 대해 어떠한 관점과 지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시대적 요청에 ‘지리학’과 ‘지지’로 그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6편의 각 지역별 지지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순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편의상 ‘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오세아니아’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체계와 주요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3, 4).<sup>10)</sup>

(1) ‘아시아·아프리카 주’의 내용체계와 주요 내용  
『소학만국지지』에서는 각 지역별로 도입부에서 각 지역(주)의 지리적 특성을 간단히 개관하여 기술한 다음, 해당 국가와 지역들을 기술하고 있다.

표 2. '아시아·아프리카 주'의 내용체계와 주요 내용

구 분	지 역	주요 내용
서문	-	학부대신 이완용이 한자로 서술
목차	-	소학만국지지목차
총론	-	지리학과 지지
第一篇 亞細亞洲	아세아주	위치, 기후, 지세, 면적, 인구, 16개 국명
	조선	“본국의 별도로 지지가 있으니 여기에서는 기록을 생략한다.”
	일본	위치, 면적, 인구, 지세, 수부(동경)와 주요 도회(대관, 경도, 5개 항구), 대만도, 정제, 국민, 교육, 종교, 물산.
	지나(중국)	위치, 면적, 인구, 지역 구분, 지세, 만리장성, 수부(북경), 주요 도회(남경, 광둥항, 향항도), 정제, 풍속, 군비, 물산, 만주, 몽고, 위구르, 서장(티베트 : 위치, 히말라야산, 수부 랏사, 불교, 기후, 토양).
	아세아로시아(아시아러시아)	위치, 면적, 인구, 지세, 바이칼湖, 물산.
	토이기사탄(투르키스탄)	위치, 인민, 종교, 수도(다슈겐드).
	아세아토이기(터키)	위치, 디구리수와 유희레도강, 구도회 예절사렘.
	아날백(사우디아라비아)	위치, 기후, 도회(麥加와 麥地拿: 메카와 메디나), 종교, 정제, 물산.
	파사(이란)	지형, 기후, 수도 德里蘭(테헤란), 인민.
	아부한(아프가니스탄)	위치, 지세, 수도 喀布爾(카불)
	피로기사탄(파키스탄)	위치, 지세, 수도 剌打德(카라치), 정제
	인도	위치, 기후, (식민)역사, 수부 甲谷他(켈카타) 주요 도회(孟買: 뭍바이, 石蘭島: 스리랑카), 토인, 물산.
	면전(미얀마)	위치, 광산물, 인민, 종교, (식민)역사, 수부 만다레.
	선라(타이)	위치, 정제, 수부 盤谷, 인구.
	불령교지 (프랑스령남부베트남)	(식민)역사, 수부 西貢.
	동포채(캄보디아)	(식민)역사, 수부 바놈빈.
안남(베트남)	위치, (식민)역사, 토지, 종교.	
第二篇 亞非利加洲	아블리가주	위치, 크기, 지형, 토인, 기후, 8개 지역명.
	토이기관할	토이기관할 지역의 범위와 3국, 埃及(위치, 지형, 尼羅河: 나일강, 수부 該羅: 카이로, 인구, 도회, 고대유적, 식민역사). 的黎波里(리비아)와 突尼斯(튀니지)의 위치
	영국령지	영국령지의 주요 국가와 범위, 峇木哥羅尼: 남아프리카공화국(위치, 지형, 喜望峯, 수부 峇林敦: 케이프타운, 기후, 인종), 那達爾: 레소토(위치, 인구, 수부, 토인), 西方亞弗利加植民地(간비아와 시에라리온의 위치, 기후), 金濱植民地: 황금해안식민지(위치, 야자유 수출), 諸島領地(聖厄里那島: 상투메프린시페의 위치).
	불국령지	불국령지의 주요 국가와 범위, 亞瀾日利亞: 알제리(수부, 기후, 도시), 塞內牙植民地: 세네갈(위치와 범위).
	일이란령지(독일령)	독일령지의 위치와 범위(슈레부헤안: 노예해안, 도고와 바기다: 토고와 베냉 등)
	포국아령지(포르투칼령)	포르투칼령지의 위치와 범위(기니만 일부와 동남해안 일대)
	서반아령지(스페인령)	스페인령지의 범위(摩洛哥: 모로코의 일부, 加奈里제도: 카나리아제도).
	독립제국	독립제국의 8개 국명과 독립지방, ① 摩洛哥國: 모로코(위치, 술탄), ② 阿比亞尼亞: 에티오피아(위치, 지형, 종교), ③ 桑給巴國: 탄자니아(위치, 수부 산가니도: 잔지바르, 벵농사, 기리만자로 산봉), ④ 馬達加斯加國: 마다가스카르(모잠비크해협, 삼림, 부족, 인구, 羅馬字 전래, 여왕), ⑤ 橋河自由國: 오렌지자유국(위치, 수부 부로엠흐넨: 블롬폰테인), ⑥ 南亞弗利加共和國: 트란스발공화국(위치, 린보보河, 인구, 수부 부레도리아: 프리토리아, 독립역사), ⑦ 里比亞國: 라이베리아(곡물해안, 해방역사), ⑧ 公額自由國: 콩고자유국(위치, 콩고강).
	독립지방	① 撒哈拉地方: 사하라지방(사막의 위치, 기후, 목축업), ② 蘇丹地方: 수단지방(기후, 농업, 토인, 나일강), ③ 蘇拉蘭地方(스와질랜드 일부 지방의 부족국가), ④ 撒皮西地方(모잠비크 남쪽 사베강 유역 부족국가), ⑤ 索謀利地方(케냐 일부 지방의 부족국가).

아시아 대륙의 도입부인 ‘아세아주’를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는 여섯 대륙 중 제일 크니 남부는 해안에 굴곡이 많으며 6개의 반도가 존재한다. 북쪽으로는 북극해에 접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마주보고 있다. 서쪽으로는 유럽과 접해있고, 또한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프리카와 연결되어 있다.

남부 일대의 열대지방은 기후가 매우 더우며, 중부는 서늘하고, 북부는 극히 춥다. 지형에 있어서 중앙에 고원이 존재하면 해안가는 넓고 그 기복이 적다. 아시아주의 면적은 1백70만 방리이며, 지구 육지의 약 1/3을 점하고 인구는 8억 명 정도이다. 전 대륙을 구획하면 왼쪽과 같이 16개 국가가 있다. 조선, 일본, ... 안남.”

조선을 제외하고 티베트를 포함한 16개국을 서술하고 있는 아시아는 약 18.5페이지의 분량으로 (약 22%), 유럽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sup>11)</sup> 조선의 경우는 ‘본국의 지지’ 즉, 『조선지지』를 이유로 생략하고, 일본을 가장 먼저 서술한다. 일본과 중국의 서술 비중이 매우 높고, 러시아와 인도가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서술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약 0.3~0.5 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서술된다.

일본은 위치, 면적, 인구, 지세에서 물산에 이르는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수도인 동경과 오사카, 교토의 3대 도시와 요코하마와 고베 등 5개 무역항에 대한 서술 비중이 매우 높다(약 2페이지). 특히 “수부를 동경이라 하니 동양 제1의 번성도시(繁都)이다. ... 관성은 시가지의 중앙에 있고, 각 관성과 병영이 둘러싸고 있으며 전선은 거미줄 같고, 철도 또한 각 지방으로 연결되어 교통운수가 편리함으로 인하여 ... 수도는 지하로 흘러 음료수를 공급하고 있다. 북부에는 우에노(上野)와 아사쿠사(淺草) 두 공원이 있어서 ... 박물관과 동물원과 음악학교와 미술학교 등은 모두 우에노 공원 안에 있다.” 등으로 동경의 도시 경관을 13행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당시의 세계적인 도시 북경(3행), 런던(6행), 파리(5행), 뉴욕(7행)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비중이다. ‘대만도(臺灣島)’에 대해서는 “지나 해안에 가까이 있어 본래는 지나에 속하였으나, 본년에 일본과 청의 전쟁 결과로 일본령

에 속하게 되었다. 토양은 비옥하여 설탕과 차, 쌀 등이 생산된다.”고 귀속 배경과 지리적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sup>12)</sup>

중국은 위치, 면적, 인구, 지역 구분, 지세, 만리장성에서 티베트(西藏)에 이르는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정체와 티베트에 대해 각각 1페이지 정도의 높은 비중으로 서술하고 있다. ‘정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정체는 군주전제이다. 고대로부터 그 전통이 변천해 온 나라이니 하, 은, 주, 진, 한, 당, 송, 원, 명 등 국호가 각기 다르지만, 같은 나라를 칭하는 것이다. ... 이 나라는 세계 제1의 고국(古國)이니 문명이 앞서 제도와 문물, 법규범 및 서적과 기계 등이 찬란하게 구비되어 있으나, 수 천년 동안 쇠국(鎖國安眠)하여 해외의 형세를 알지 못하고 개화의 풍습은 점차 퇴각하여 국세는 부진하며 .....”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티베트에 대해서는 “이 곳은 지나 본 대륙의 서남에 있으며, 인도에 가까우며 세계 제1의 고원지라. 해수면이 융기하여 1만4천 피트(呎)요. 그 남쪽 끝에 있는 히마라야산은 곤륜(崑崙)이니 세계 제1의 고산이라 ... 이 나라는 불교가 번성하여 ... 수도를 랏사-라 하니 ... 기후가 한랭하고 토지가 경작에 불리하여 .....” 로 지리적 특징을 중심으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러시아는 터키와 함께 ‘아세아노서아(아시아러시아)’와 ‘아세아토이기(아시아터키)’로 유럽의 ‘구라파로서아(유럽러시아)’와 ‘구라파토이기(유럽터키)’와 구분하여 위치, 면적, 인구, 지세, 마이갈湖, 물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국가로서의 설명은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아시아에서는 하나의 지역으로서 서술되는데 주로 지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지형으로 “마이갈호는 알다이스산맥의 북쪽에 위치하며 아세아 담수호 중에서 최대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아세아토이기에서는 “...국내에 되구리수와 유후레도라하는 유명한 두강이 있어 강변 지역은 비옥한 평원이니 인류가 창생(創生)한 선지(善地)라 칭한다. 서부에 예절사람(예루살렘)이라하는 구도가 있으니 예수가 탄생한 지역으로 세상에 유명하니라.”고 서술하고 있다.

인도는 위치, 기후, 역사, 캄커타, 몸바이, 스리랑카, 토인, 물산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특

히 식민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즉, “이 나라는 옛날에 문명이 발생하고 번성한 곳으로 서구 제국이 아직 몽미할 때에 이미 대도시가 있었으며, 사람들은 아름다운 직물을 제조하고 ... 타국인들이 이 나라를 줄줄이 탐내게 한다. ... 옛 도시의 고적이 수 천년 간 여러 차례 변천되면서 문화를 크게 손실하였고, 이 나라의 변화하고 중요한 곳은 대부분 영국인이 전유한 바가 되었으므로 지금은 영령인도라 칭한다. 캘커타(甲谷他)는 영령 인도의 수부라. ....” 고 고대 문명의 번성함과 영령 인도가 된 과정을 연결, 서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얀마는 ‘영국에 속하는’ 곳으로, 남부 베트남은 ‘프랑스의 동양령지 중의 중요한 곳’으로,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19세기 말 식민 상황을 주요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시아의 서술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서술 순서, 비중, 내용에 대한 관점이 대조적인 것이 특징이다. 중국을 ‘지나’로 서술한 것은 중국을 비하한 것이고, ‘동경’을 비롯하여 일본의 근대 문물에 대한 내용은 지나치게 미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모두가 당시의 실상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제2편 아프리카주는 당시 아프리카 상황에 근거하여 서양 제국주의에게 침탈된 18개 지역(터키 관할 3국, 영국령 6개 지역, 불국령 2국, 독일령 3개 지역, 포르투갈령 2개 지역, 스페인령 2개 지역)과, 8개의 독립국가 및 5개의 독립지방으로 구분하여 총 31개 지역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입부에서는 “본 대륙의 지역 구분은 알 수 없는 곳이 있어 편의에 따라 왼쪽과 같이 구분하노라.”고 서술하고 있어,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한 당시 아프리카의 혼란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터키 관할의 3개 지역(약 1.5페이지)에서는 주로 이집트(약 1.3페이지)에 대해 서술하고, 영국령지 6개 지역(약 1.7페이지)은 각각 비슷한 비중으로 서술하고 있다. 프랑스령 2개 지역은 약 1페이지 정도로, 독립제국 8개국은 가장 높은 비중(약 3.3페이지)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5개 독립지방은 약 1.5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이집트를 제외한 나머

지 국가나 지역은 대체로 0.3~0.5페이지 정도로 서술되고 있으나, 스페인령 2개 지역은 1행으로 서술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도입부에 해당 지역의 주요 국가를 서술한다. 즉 터키기 관할에서는 “터키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이름이 있는 것으로 이집트와 레바논과 튀니지의 3국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실제 서술에서는 주로 이집트에 대해서 서술하고, 레바논과 튀니지는 그 위치만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이집트에 대해서는 위치, 지형, 나일강, 카이로, 인구, 알렉산드리아, 고대 유적, 식민 역사 등을 서술하고 있으며, 특히 고대 유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식민지역은 유럽 제국주의 관할 지역의 위치와 범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만, 독립국가와 지방에 대해서 지리적 환경이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식민 역사뿐만 아니라, 독립 역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2) ‘유럽 주’의 내용체계와 주요 내용

제3편 유럽주에서는 가장 많은 국가가 서술되고 있는데, 영국(약 2페이지), 스페인(약 1.3페이지), 이탈리아(약 1.8페이지), 터키(약 1.5페이지), 러시아(약 2페이지), 독일(약 1.5페이지)의 6개 국가에 대한 서술 비중이 비교적 높다. 나머지 국가들도 몬테네그로(약 0.3페이지)와 스웨덴-노르웨이와 세르비아(약 0.5페이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0.8~1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 비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술되고 있다. 이는 당시 세계의 중심인 유럽에 대한 편찬 저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본으로 삼은 일본 서적이 유럽의 지리서를 번역하거나 참고한 서적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주의 도입부에서는 “본 대륙의 여러 국가는 대개 군민(君民)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정체로되, 3~4개국에는 공화정치도 있고 군주의 독재정치도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는 정체와 국민 혹은 인민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영국에 대한 서술에서는 지역구분, 런던, 5대 성도(盛都), 상공업 발달을 중점적으로 서술한다.



표 3. '유럽 주'의 내용체계와 주요 내용

구분	지역	주요 내용
第三篇 歐羅巴洲	구라파주	위치, 기후, 정체, 인민, 18개 국명
	불열전제도(영국)	위치, 지역구분, 지세, 기후, 국민, 종교, 수부 倫敦, 도회(리버풀, 맨체스터, 애든버러, 글래스고, 더블린), 상공업, 정체, 영국령과 속국.
	서전제위(스웨덴-노르웨이)	위치, (연합왕국)역사, 지형, 수부 士德威: 스톡홀름, 산업.
	정말(덴마크)	위치, 수부 古篇惠見(코펜하겐), 氷島(아이슬란드, 분화구), 국민성, 정체
	화란(네덜란드)	위치, 지세(해안 제방), 羅仁河의 수로교통, 수부 惠求: 헤이그, 도회(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인민, 정체.
	백이의(벨기에)	위치, 지세, 인종, 언어, 종교, 수부 富羅雪, 인구, 무역.
	불란서(프랑스)	위치, 지세, 하류, 지역구분(政區), 인구, 기후, 국민, 수부 巴里, 도회(리옹, 마르세유), 地品(토양), 정체.
	서반아(스페인)	위치, 지세, 하류, 수부 馬德里, 도회(바르셀로나), 지브롤터, 기후, 인민, 물산.
	포도아(포르투갈)	위치, 지세, 하류, 기후, 수부 里斯本, 도회(포르투), 국민, 정치, 물산.
	서서(스위스)	위치, 지세, 하류, 수부 伯爾尼: 베른, 제조업, 기후, 정체, 인민, 풍경.
	이태리(이탈리아)	위치, 지세, 기후, 로마제국, 수부 羅馬, 도시(나폴리, 베네치아, 후로렌수), 통일 역사, 물산.
	구라파토이기(터키)	국명 유래, 위치, 지세, 하류, 수부 君士坦丁: 이스탄불, 기후, 풍속.
	라마니아(루마니아)	터어키의 속국, 위치, 농경과 목축, 수부 不加勒斯: 부쿠레슈타, 인구.
	색이유아(세르비아)	위치, 지세, 수부 베루구레도.
	문두니골(몬테네그로)	위치, 수부 세지네.
	희랍	위치, 지세, 기후, 최선개화국, 인민, 수부 雅典: 아테네.
	구라파로서아(유럽러시아)	위치, 지역구분(68 政區와 10部), 지세, 하류, 토지, 인민, 국교, 國都 聖彼得堡府, 구도(모스크바), 물산, 정체
	일이만(독일)	위치, 지역구분, 지세, 하천, 국도 伯靈(베를린), 도시(함부르크, 드레스덴), 인민, 종교, 정체, 물산.
	오지리흥아리 (오스트리아와헝가리)	위치, 지세, 수부 維也納(빈), 대도(希多伯息: 부다페스트), 정체, 물산.

이 중에서도 상공업 발달에 대해서는 “이 나라는 세계 제1의 상업장이요. 또 세계 제1의 공업장이다. 제조하는 물건 중에 최고인 것은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유리 등이요. 광산물에는 철과 석탄이 세계에 유명하니라.”와 같이 최고의 수사학을 동원하여 서술하고 있다. “본 대륙의 서부에 위치한 대국이다.”로 시작되는 프랑스는 위치, 지세, 하류, 87개 정치구역(政區), 인구, 기후, 국민, 파리, 리옹과 마르세유, 토양, 정체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수도 파리는 “세느강(塞印河)에 접하며 여러 기술과 예술의 중심지요. 또한 유럽 여러 나라의 복장(服裝)과 기타 명물의 중심이라. 시가지가 화

려하고 철도가 사방으로 연결되며, 전선이 팔방으로 연결되고 인구와 면적은 런던에 이르지 못하나 변화함은 세계에 유명하다.”로 그 화려함과 규모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위치, 지세, 하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영국령 지브롤터, 기후, 인민, 물산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세와 로마·나폴리·베네치아·피렌체 등의 도시에 대한 설명의 비중이 높고, “이 나라는 외환내우로 국내가 혼란하고 기강이 부진하더니 거의 20여년 전에 혁명전쟁을 한 후로 전국이 비로소 통일되어 하나의 독립 국가를 이룬 입헌군주국이 되었다.”는 통일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터키에서는 ‘구라파토이기’라고 부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터어키 제국은 일명 옷도만(오트만)이다. 구라파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3주에 접하여 한때 그 위력을 유럽에 떨쳤으며 ... 현재는 그 세력을 크게 잃고 유럽에 있는 것을 본부로 하여 구라파토이기라 한다.” 고 자세히 설명하고, 수도인 콘스탄티노플(君士坦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러시아는 68개 정치구역과 역사와 지리상의 이유로 전국을 10부로 구분하는 사실과 그 지명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세, 국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구도인 모스크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위치, 지역구분, 지세, 하천, 베를린, 함부르크, 드레스덴, 인민, 종교, 정제, 물산 등에 대해서 골고루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모두 터어키 제국의 속국’이지만, 지금은 점점 독립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국가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스에 대해서는 “이 나라는 유럽 중에 최선 개화국(最先開化國)으로 곳곳에 명소 유적이 많으며, 인민은 고대 희랍인류이니 담화변론을 좋아하고 기지(機智)와 예술적 재능이 풍부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서술하고 있다. 유럽 각 국의 도시, 산업, 국민 등에 대해서는 영국의 사례처럼 ‘제일’, ‘최대’ 등의 수사학으로 근대적 실상을 서술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 (3)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오세아니아 주’의 내용체계와 주요 내용

제4편 북아메리카주에서는 ‘목차’와 달리 12개 국가(캐나다, 미국,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6개국, 서인도제도 3개국)와 4개 지역(덴마크령 그린란드, 영국 직할식민지 뉴펀들랜드, 스페인령 푸에르토리코, 영국령 버뮤다제도) 등 16개 지역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미국의 서술 비중(약 4페이지)이 가장 높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서술 비중(약 1.5페이지)이 비교적 높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지형(로키산, 캐스케이드와 시에라마드레 산맥, 미시시피강, 대평원, 5대호, 나이아가라폭포-세계 제1의 대 폭포, 멕시코만 등)을 중심으로 한 지세와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천연생산물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수도

와 대도시, 알래스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수도인 워싱턴은 3행 정도로 서술했다면, ‘동서양 무역의 요충지로 미국 제1의 대대회’인 뉴욕에 대해서는 7행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의 주요 도시에 대해서도 위치와 인구, 산업 등에 대해서 10행 정도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토양과 기후가 천산물의 발생에 적당하고, 또한 토지가 광대하여 물산이 풍부하니 유럽 인민의 식료는 대부분 미국에서 수출’하는 국가로 농산물 재배, 어획술, 목축법의 발달 등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천연자원의 풍부함은 물론 그것의 생산기술의 발달 등의 근대화 실상을 서술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세와 기후를, 멕시코는 위치와 지형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식민지와 관련하여 캐나다는 “영국 여왕이 선출한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설명하고, 뉴펀들랜드는 “캐나다령에 속하지 않고 영국 직할의 한 식민지이다.”로 구분, 식민지배의 다양한 양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린란드와 뉴펀들랜드는 지세와 기후 중심으로 설명하고, 중앙아메리카는 위치, 6개국명과 수도, 지세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옛날에는 중앙아메리카연방국을 조직하였던 국가들이다.”는 서술로 이 국가들을 ‘중앙아메리카’로 분류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sup>13)</sup> 서인도제도는 위치와 지역구분(大·小앤티리스제도, 바하마군도), 기후에 대해서 서술하고, 대앤티리스제도의 4개 국가(쿠바, 도미니카, 아이티, 자메이카)와 푸에르토리코 섬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버뮤다 제도는 위치, 주민의 수, 기후, 생산물 등을 5행에 걸쳐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제5편 남아메리카주에서는 11개 국가와 포클랜드 제도 등 12개 지역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도입부인 ‘남아미리카주’에서는 지세와 아마존 강에 대한 자세한 서술로 다른 대륙에 비해 비중(2페이지)이 매우 높다. 브라질과 페루(약 1.5페이지) 그리고 콜롬비아와 칠레(약 1페이지)에 대한 서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브라질에 대한 서술은 “본 대륙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로 시작되며, 위치와 지세 그리고 아마존강과 그 수로에 대해 자세

표 4.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오세아니아 주'의 내용체계와 주요 내용

구분	지역	주요 내용
第四篇 北亞米利加洲	북아메리카주	위치, 지세, 인구, 인종, 11개 국가명
	가리란(그린란드)	위치, 지세, 기후, 주민(인종).
	가내태(캐나다)	위치, 지세, 기후, 주민, 종교, 영국령, 수부 阿他瓦(오타와), 상업도시(몬트리올), 구도시(그에벳구: 퀘벡).
	신저대도(뉴펀들랜드)	위치, 지세, 기후, 인구, 수부 聖約翰(세인트존스), 영국직할식민지.
	북미합중국(미국)	위치, 인구, 지세(지세 대별, 산, 산맥, 대평원, 5대호, 대폭포, 미시시피강, 멕시코만 등), 기후, 인민, 언어, 종교, 교육, 수부 華盛頓, 대도회(紐育, 費拉特費: 필라델피아, 波士頓: 보스턴, 市加俄市: 시카고, 柔方斯西哥港: 샌프란시스코), 天產物(식량작물, 면화, 연초, 설탕, 과일, 어획기술과 목축법 발달, 광산물: 금, 은, 수은, 철, 석회석, 석유, 기타 광물), 연방공화국, 亞拉斯加(알래스카).
	멕시코(멕시코)	위치, 지형, 기후, 인종, 수부 墨西哥, 연방공화국, 물산.
	中央亞米利加(중앙아메리카)	위치, 6개국과 수부① 과지마랍-新瓜地馬拉, ② 핑도랍사-헝시팔과, ③ 삼살와다-산살바더아, ④ 니가랍과-마병아, ⑤ 가사덕리가-산히자바, ⑥ 영령 핑도랍사-베리즈), 지세, 기후, 인종, 언어, 물산, 독립공화국.
	서인도제도	위치와 범위, 기후, 물산, 인민, 大안데일群島(대앤티리스제도): ① 古巴(쿠바의 위치, 교통, 물산, 수부 哈아나, 스페인령), ② 海地(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공화국, 독립공화국), ③ 牙買加(자메이카): 영령제도, 수부 坎구스던(킹스턴), ④ 波多里哥(푸에르토리코): 스페인령 소도, 발견자 可倫波氏.
	파뮤다스제도(버뮤다제도)	위치, 지역구분, 기후, 물산, 영국령.
第五篇 南亞米利加洲	남아메리카주	위치, 지세, 하도(亞馬孫河), 기후, 인구, 인종, 종교, 언어, 정체, 11개 국가.
	가룸비아(콜롬비아)	위치, 지세, 대하, 수부 보고다, 제도.
	위내서랍(베네수엘라)	위치, 지세, 수부 加拉加斯, 정체, 재정.
	기아나(가이아나)	위치, 지세, 물산, 三領地(英領 수부 조주타운, 蘭領 수부 파라마리보, 佛領 수부 게옌).
	과서(브라질)	위치, 지세, 아마존강과 수로, 식물, 농산물, 수부 리오자네로, 독립제국.
	액과다(에콰도르)	위치, 지세, 고산京都 쿼도, 기후, 주요항(키야킬: 과야킬)독립공화국.
	비로(페루)	위치, 지세, 기후, 국도 利馬, 광업, 농산물, 독립과 국력상실(鳥糞島, 硝石坑).
	파리비아(볼리비아)	위치, 지세, 수부 오루로, 舊都 스구리(수크레), 광물(금, 은, 동, 초석).
	지리(칠레)	위치, 지세, 기후, 교육, 인민, 수부 산치아고, 산물(동, 오크, 목재), 독립과 부국강병.
	알첸틴공화국(아르헨티나)	위치, 지세, 수부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공화국.
	파랍규(파라과이)	위치, 지세, 기후, 수부 아순손, 남미 최소국.
	오아규(우루과이)	위치, 지세, 수부 몬테비데오, 목축업, 독립공화국.
호굴란드(포클랜드)제도	위치와 범위, 인구, 토지, 영국령, 동도의 스탠레(스탠리).	
第六篇 阿西亞尼亞洲	아시아니아주	위치와 범위, 지역구분(마래군도, 호테리아군도, 파리니서아군도)
	마래군도(말레이제도)	지역구분, ① 暹羅諸島(지명유래, 민다나오島, 수부 麻尼羅, 천연자원, 물산), ② 산디諸島(위치와 범위, 뉴기니아와 보루네오, 지세, 大都府 바테비아港, 기후, 토지, 물산, 4대 港市, 和蘭 領地: 보루네오와 뉴기니 일부).
	호테리아(호주)군도	지역구분(3島), ① 호주(해안지형, 지세, 하천, 기후, 인구, 토인, 영령 식민지 5부와 수부: 昆士蘭도-부린수벤, 뉴사우스웨일스-시도니, 위구도리아-메루본, 南濠太利亞-윈센도, 西濠太利亞-파루수), ② 다수마니아島(수부 호바루도), ③ 뉴지란드(위치, 기후, 지형, 수부 왜린돈, 大都: 오구란도와 구리수자나).
	파리니서아(폴리네시아)군도	지역구분(火山島와 珊瑚島), 기후, 토양, 식물산, 토인, 유럽제국의 領地

히 서술하고 있다. 페루는 위치, 지세, 기후, 리마, 광업, 농산물, 독립과 국력상실 등에 대해서 비슷한 비중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페루는 전에 스페인에 속하였으나 서기 1831년에 그 속박과 피해에서 벗어나 독립공화국이 되었고, 근년에 인접국 칠레와 전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진 조분도(鳥糞島)와 초석갱(硝石坑)을 잃고 또 해군을 빼앗긴 후 국력이 쇠잔하여 아직 회복할 기운을 얻지 못하였다.”<sup>14)</sup>라는 설명은 칠레의 경우와 비교된다.

즉, 칠레도 위치, 지세, 기후, 교육, 인민, 산티아고, 산물, 독립과 부국강병 등에 대해서 비슷한 비중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나라는 교육의 진보는 근린 제국에 비하여 우수하게 번성하고 인민이 능히 모든 일에 근면하고 또 인내하여 국내가 오래 태평하니라.”라는 내용과 “이 나라는 초기에는 스페인의 속지(屬地)였으나, 서기 1818년에 공화정부를 창건하고, 근년에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조약으로 인하여 막대한 토지를 얻었고 또한 페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판도를 증대하여 현재는 남미 대륙의 강대국이 되었다.”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위치, 지세와 함께 “수부 부예노스아이레스는 라플라타강(拉不拉他江) 남안에 있어 무역이 성대하고 인구는 45~46만 정도이고, 철도와 전선, 우편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며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대부분의 수도와 대도시 서술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는 수도나 대도시의 이름과 지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의 관점에서 산업과 무역의 발달, 철도 교통 및 각종 제도의 발달과 관련지어 ‘하나의 지역’으로서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사례이다. 서술 비중이 적은 우루과이(약 0.5페이지)에서도 “이 나라는 처음에 스페인에 속했고 뒤에 브라질의 속군(屬郡)이 되었으나, 1825년에 독립을 선포하고 공화국이 되었다.”는 내용을 의미 있게 서술하고 있다.

남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전쟁과 독립, 국력 상실, 교육의 진보, 강대국으로의 부상 등에 대한 인과관계와 국가별 비교를 통한 구체적인 서술 내용은 당시 학생들과 독자들에게 근대화와 부국강병의식함양에 직접적인 시사점이 되었을 것이다.

제6편 오세아니아주에 대한 서술은 호주군도(약

2.7페이지)와 말레이제도(약 1.8페이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폴리네시아는 화산도와 산호도로 구분하고 제도 전체의 대략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호주군도는 호주, 태즈메이니아 섬, 뉴질랜드의 3개 섬 지역으로 구분하고, 호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한다. 이 중에서도 영령 식민지 5개 지역과 그 주도(州都) 각각의 지리적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말레이제도는 많은 섬으로 구성된 이 지역을 필리핀제도 및 순다열도로 구분하며, 예부터 말레이인종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서두로 이들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 3. 『소학만국지지』 내용체계와 서술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

근대계몽기 지식확산의 중요 축이었던 세계지리 교과서 『소학만국지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체계와 서술방식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소학만국지지』는 그 내용에 있어서 과거의 인식론과 구별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서술방식도 새롭게 시도된 것이다. 즉, 내용과 서술방식은 기존의 중국 중심의 사대교린에 근거한 문명관과 세계관에서 벗어나 서구 중심의 실용적인 문명관과 확대된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문물 개화 및 사회진화의 변혁적인 논리에 의거하여 세계 각 지역 발달의 구체적인 실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조선의 부국강병을 도모한 근대적 세계지리 교과서이다.

『소학만국지지』는 서양의 지리서를 참고 혹은 번역한 것으로 생각되는 일본 지리서를 저본으로 일본인 번역관 등 비전문가들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측면도 있지만, 그 내용은 기존의 왕조중심의 전통에서 벗어나 지리교육의 목적이 새롭게 정의되고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세계관과 문명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지리교과서의 시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략 100여개 국가나 지역의 지형, 기후, 토양, 역사·문화, 도시, 인구, 상공업, 자원과 물산 등을 망라하는 서술 주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변혁적이고 근대적인 것이었다.<sup>15)</sup> 뿐만 아니라, 각 국가나 지역을 구성하는 자연적이고 인문적인 내용들은,

내용 지식 그 자체를 넘어 주어진 지역 안에 존재하는 인간과 지역사이의 ‘총체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는 『소학만국지지』가 ‘여러 지리적 특징을 통해 하나의 국가나 지역을 이해’하고 ‘지표상의 여러 국가와 대륙의 총합으로서 세계를 이해’함을 바탕으로, ‘교과서 속의 세계’ 그 이상을 상상케 하는 세계지리 교육의 본래적 모습을 갖춘 지리교과서의 시작임을 나타낸다.

이에 『소학만국지지』의 내용체계와 서술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지지 기술과 구성, 근대적 세계관과 부국자강의 국가관 제시, 국한문혼용의 문자와 문체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학만국지지』의 지지 기술방식은 ‘총론’에서는 행성으로서의 지구를 설명하는 천문(수리)지리와 자연지리, 인문지리 등의 넓은 의미의 지리학을 설명하고, 각 대륙별 지지에서는 세계의 각 대륙과 각 국가와 지역 등 단위지역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서술한다. 이와 같이 천문지리 또는 자연지리를 기술한 다음에 인문지리를 기술하는 방식은 당시 널리 알려진 일본 지문학의 기술방식이지만, 이는 근대 지리학자 헤트너(A. Hettner)의 이른바 지지도식(地誌圖式)에서 유래한 방식이다. 지지도식은 보다 폭넓고 일관된 지역구분(지역화)을 바탕으로 각 공간의 독자적 특성과 다양성을 그 속에 존재하는 인과적 관련성에 의거하여 파악하는 코롤로기(chorologie)로서 지지를 기술하는 것이다(안영진·김상빈, 2004).

마찬가지로 『소학만국지지』는 지표를 5대양과 6대주로 대분하고, 각 대륙을 국가-지역의 체계로 세분한 후, 지역의 위치·형상·크기, 지질, 지형, 기후, 식생, 천연자원, 취약발달과정, 인구분포, 경제형태, 교통로, 정치적 구분 등의 주제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이러한 현상들은 인과관계의 연속적인 형태 속에서 검토하였다. 나아가 지역 내의 각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와 지역들 간의 비교를 통해 총체화된 지역의 구조를 설명하는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다.

둘째, 또한 『소학만국지지』의 각 지역은 아시아→아프리카→유럽→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오세아니아의 순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여재촬요』(아시아→유럽→아프리카→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대양주)와 『사민필지』

(유럽→아시아→아메리카→아프리카)와는 비교되는 구성 방식이다. 이는 『소학만국지지』이후의 우리나라 세계지리 교과서나 지리부도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유럽→아메리카→오세아니아의 체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도 근대적이다.<sup>16)</sup>

셋째, 당시의 세계지리서들과 마찬가지로 계몽주의적이며 사회진화론적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소학만국지지』는, 각 국가의 수도와 대도시, 정체, 국민(인민), 식민과 독립의 역사, 천연자원과 물산 등의 실상을 통해서 최선개화국과 쇠국, 개화와 개명, 제국주의와 식민지, 전쟁과 영토상실, 독립공화국과 부국강병, 상공업과 무역 발달의 지리적 지식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밖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세계관을, 안으로는 문명화와 근대화를 통한 부국자강의 국가관을 확립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였다.

1890년대 후반기부터 개화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대체로 물질 개화로써 ‘개물(開物)’, 인적 교화로써의 ‘화민(化民)’을 결합한 용어로서 정착되고 있다. 이때의 ‘개물’이란 국내자원의 개발에 의한 산업의 근대화이며, ‘화민’이란 계몽과 교육에 의한 인간의 의식과 지식의 근대화를 말하는 것이었다(강재언, 1981, 175). 당시의 사회진화론은 서구가 문명화될 수 있었던 근원과 조선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국가의 독립을 위한 행동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계몽시키고자 하였으며(전복희, 1996, 139),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에 토대하여 개인, 집단, 인종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관계를 인식하였다(강순돌, 2005, 597). 또한 개화사상은 이질문명, 즉 서양의 충격 앞에 자민족의 보존과 번영을 위한 주체의식의 사상화였으며, 이의 실현수단으로서 서양의 근대물질과 기술문명을 수용하려는 근대지향의식이었다(홍일식, 1977).

일본을 비롯하여 당시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침탈 야욕의 현실에서 개화를 통한 근대화와 부국자강의 열망은 세계 여러 나라의 낯선 수도와 도시들에 대한 서술에서 잘 나타난다. 근대계몽기 지리교과서 『소학만국지지』의 새로운 기술형식은 192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각이미지들의 전초(前哨)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각종 이미지들이 실린 최신세계지리

가 발간되어 근대가 총체적으로 경험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모습은 문자로 상상될 수밖에 없었다(김영훈, 2010). 『소학만국지지』에서는 각 국가와 지역의 실상은 최고, 최강, 최대, 세계 제1 등의 수사학으로 묘사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는 물론 변화한 유럽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매우 시각적인 표현과 묘사가 빈번히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수도와 대도시들이 열거되고, 도시의 발달상은 전기, 철도, 교통, 박물관, 학교, 공원 등으로 묘사될 때 근대의 이미지는 극대화된다. 이 지리적 상상력은 새로운 주체의식이 탄생되고 새로운 상상력을 공유하는 근대적 국민과 국가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한문 혼용체로 서술된 『소학만국지지』는 문체, 문자, 편집 체계 등에서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여학생들을 포함한 초등학생들이 좀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된 교과서이다. 총론에서 목차를 제시하고, 그 순서에 따라 각 대륙별, 국가별, 지역별, 주제별로 각 지역의 지지를 서술하고 있다. 서문(2장)과 목차(5장)는 각각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총론에서 각 지역별 지지는 연속되는 페이지(84장)로 구성되어 있다(표 2). 편집은 한자본의 책과 같은 세로쓰기를 따르고 있으나, 각 페이지는 중앙의 ‘萬國地誌’ 제호(題號)와 페이지가 표기되고 이를 중심으로 좌, 우 각 10행(1행은 20자)의 일정한 분량으로 서술되어 시각적으로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량과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아직 하위 주제나 항목을 구분해주는 번호나 기호 등의 별도 표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항목별 내용에 따른 문단 구분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그림 1).

19세기 말의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상황에서 『소학만국지지』는 중국과 일본의 다양한 한자어 계열 지명들이 표기되고 있지만, 세계 각 지역의 지명에 대한 한글 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을 통한 지리 지식의 수용에서 서양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수용이라는 지식 수용 방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명의 자국화란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일부 조사와 서술어 정도만 한글로 표기되었지만, 세계 여러 국가나 지역들의 주요 지명의 한글 표기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표 2, 3, 4참조).<sup>17)</sup> 화자가 어떠한 어

휘를 받아들이고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세계관을 수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이지영, 2008, 129). 뿐만 아니라, 한문중심의 기술이 점차 국한문 혼용단계로 변화하면서 드러나는 문자, 문체의 변화는 단순히 가독성뿐만 아니라 엘리트와 일반인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민중의 탄생을 가능케 한 토대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민권운동과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는 기반의 하나가 되었다(김영훈, 2010).

#### 4. 결론

근대 계몽기의 짧은 시기 중에 이른바 『만국지지』라 불리는 세계지리서들은 복합적이며 급진적인 사회변혁의 논리와 새로운 지리적 지식으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1895년 근대식 학제에 의거하여 학부에서 공식 편찬한 『소학만국지지』는 근대 초기 세계지리 교과서로서 그 의미와 영향은 구체적인 내용체계와 서술방식에서 나타난다.

먼저, 『소학만국지지』는 지표를 5대양 6대주로 대분하고, 세계를 지역 스케일에 따라 대륙, 국가, 지역의 규모로 구분하여, ‘조선’이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유럽→아메리카→오세아니아의 순으로 지평을 확대하는 6편의 지역별 지지로 구성되었다. 각 국가나 지역은 총론 개관과 함께 자연지리에서 인문지리에 이르는 주제의 순서로 서술하는 근대적 지지 구성 방식으로 내용체계를 갖춘 세계지리 교과서이다. 세계 각 지역의 지리적 실상을 통해 밖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세계관을, 안으로는 문명화와 근대화를 통한 부국자강의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한 교과서였다. 뿐만 아니라 국한문 혼용체로 서술된 『소학만국지지』의 문체와 문자 그리고 편집 체계상의 변화는, 세계 각 지역의 지명에 대한 한글 표기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지명의 자국화, 서양 근대 지식의 직접적인 수용, 가독성 향상으로 세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대중화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 대륙, 국가, 지역에 대한 자연지리에서 인문지리에 이르는 지지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소학만국지지』는 당시의 세계를 계몽주의와 사회 진화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민족주의 복합적 이데올로기를 견지하면서, ‘위치’, ‘지세’, ‘도시’, ‘자원’, ‘상공업’, ‘국민’ ‘정체’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를 보다 폭넓게 인식하고, 조선의 근대화와 부국자강을 상상케 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계 각 지역의 광활한 영토와 대지형, 근대화된 도시의 실상과 개화된 국민, 발달한 상공업과 민주정체 등은 타자가 전해주는 욕망과 이상이었지만, 그것을 꿈꾸고 뒤쫓은 것이 조선의 근대화와 부국자강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었다.

## 주

- 1) 근대계몽기는 주로 ‘개화기’로 일컬어 왔다. 일반적으로 개화기는 1870년대 초기 개화파의 형성기로부터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직전의 애국계몽기(강순돌, 2005)로써의 의미는 물론, 그동안 ‘개화기’로 통칭되었던 수동적인 인식의 수준을 넘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행보를 반영하여(홍순애, 2009) ‘근대계몽기(1894~1910)’로 명명한다. 이 시기는 개화기 중에서도 특별한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볼 수 있다. 19세기 중후반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 열강의 간섭과 압력이 점차 강화되고, 이렇게 시작된 내부불안은 갑신정변, 동학운동과 청일전쟁 등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기획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신지식의 보급은 나라의 존망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과거제가 폐지되고 교육입국 조치가 발표되고 이에 따라 학제가 정비되고 신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지식을 담은 교과서가 발행되기 시작한다. 1896년 2월까지 학부가 발행한 교과서도 지리, 역사, 수신, 독서, 산술로 나타나 있으며, 1899년 황성신문의 사설에서는 특히 가장 시급히 필요한 만국지지와 만국역사에 대한 교과서가 보급되지 않아 아직 우물 안의 개구리 형편이라고 걱정하고 우려하던(김영훈, 2010, 17). 시기이다. 지리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근대 학제에 의한 교과서를 갖춘 학교에서 근대적 지리교육이 시작된 태동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여러 세계지리서가 발간되었으며, 학부가 발행한 세계지리 교과서는 『사민필지』, 『소학만국지지』, 『여재촬요』, 『지구약론』, 『중등만국지지』 등이다. 1895년 8월에 발간된 『국민소학독본』과 『소학독본』, 1896년의 『신정심상소학』의 내용도 수신, 계몽, 지리, 과학, 문학, 역사 등으로 지리적 지식은 지리교과 밖에서도 중요한 내용이었다(이종국, 2008 참조).
- 2) 개화기의 교과서를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학부에서 발간한 교과서 등의 서적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정확하지 않지만, 서태열(2013)에 의하면, 구한말 대한제국시대(1895년~1905년) 학부에서 발간된 지리교과서는 『사민필지』→『소학만국지지』→『조선지지』→『여재촬요』→『지구약론』→『대한지지』→『중등만국지지』의 순으로 발간된 7권이다. 이 중에서 학부가 직접 편찬하여 발간한 것은 『조선지지』, 『소학만국지지』, 『지구약론』, 『중등만국지지』의 4권이다.
- 3) 1906년부터 한국의 교과서는 철저히 일본의 관리와 통제를 받게 된다. 1909년 ‘대한매일신보’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좋은 것은 본받고 해로운 것은 본받지 말며 나에게 이로운 것은 취하고 이롭지 못한 것은 버려서 좋고 아름다운 번역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는 논설이 실린다(김봉희, 2006, 122). 일본의 간섭과 통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발간된 『소학만국지지』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취사선택된 내용으로 서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실제는 萬國地誌序→小學萬國地誌總論目次→萬國地誌總論→第一篇 亞細亞洲로 표기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 서문, 목차, 총론 등으로 서술한다. 『소학만국지지』 표지에는 제호(題號)가 ‘萬國地誌(全)’으로 표기되어 있다. 각 소장처의 목록에도 ‘만국지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완용의 서문이 없는 경우가 많다.
- 5) 제시된 서지사항은, 萬國地誌(권두서명: 소학만국지지), 學部木活字, 6篇1冊, 28×18.5cm, 匡郭: 四周單邊, 有界, 半葉匡郭(21.6×14.2cm), 10行20字, 注雙行이다. 총론과 6편의 지지는 84페이지, 전체는 91페이지이다.
- 6) 『소학만국지지』는 이완용의 서문을 제외하고는 국한문 혼용체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같은 시기에 순한글 『스민필지』가 한자본 『土民必知』로 한역되고, 1896년 오형목의 『여재촬요(輿載撮要)』가 한자본으로 출간된 것과 비교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1894년 군국기무처가 교과서와 공문서에서 한글 사용을 강조하는 의안을 채택하고, 1895년 친일내각이 일본인을 고용하여 교육용 도서를 국한문혼용으로 만드는 등의 ‘친일적 개혁에 불만을 가지는 수구파들의 전통적인 보수정신’을 억누르려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서술한 신교육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7) 서태열(2013)에 의하면, 일본인 高見龜(다카미가메)는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하면서, ‘학부대신과 협관, 국장의 지휘에 따라 제반 업무를 집행 하에 사범학교 속성과 교육을 쉰 때에는 교과서 번역’을 담당하도록 학부와 고용 계약된 사람이며, 이의 영향으로 『소학만국지지』의 일본 관련 내용은 미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 8)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소학만국지지』자료해제’에 의하면, 갑오경장(1894)의 다음해에 조선8도의 행정구역은 23부로 개혁되고, 학부아문이 다시 학부로 개

칭되면서 개혁된 체제의 시대적 당위성을 홍보할 목적으로 학부 내에 편집국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책자들을 출간하게 되었다. 『조선지지』가 종래 지지의 모습에서 탈피, 개혁만을 알리려는 의도 하에서 간략한 내용으로 서둘러 출간되어 각 관공서의 비치 내지는 홍보용인 조선 내부에 대한 지지라면, 『소학만국지지』는 신학문의 필요성을 표방한 소학의 교과용 외국지리서이다.

- 9) '목차'에서는 67개 정도의 국가나 지역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서술된 국가나 지역은 대략 100여개 정도이다. 이는 현재 초등학교는 물론 중등학교 세계지리 영역이나 세계지리 과목에서 제시되는 국가나 지역과 비교해도 방대한 범위이다. 비록 관련 지도가 제시되지 않았고 깊이 있는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세계인식과 세계관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정보라고 할 수 있다.
- 10) 표 2, 3, 4에서 위치는 5대양과 6대륙이나 주변 국가 혹은 경계가 되는 지형 등을 관계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지리적 위치이다. 지세는 주요 지형을 서술하거나 하천을 포함한 자연환경 전체를 서술하고 있다. 지세와 구분하여 서술되는 하류(河流)는 주요 하천의 발원지와 하구(河口)를 설명하며, 남아메리카의 총론에서는 '河道', 콜롬비아에서는 '大河' 등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도회(都會)는 대도시를 뜻하지만, 지역에 따라 '都市', '大都', '盛都'로 서술하며, 수부(首府)는 수도이며, 러시아와 독일의 경우에는 '國都'로, 일부에서는 '京都'로 서술하기도 한다. 인민(人民)은 "인민은 몽고종류요(아시아의 토이기사탄)."와 같이 인종을 서술하거나, "대개운순한 편이고...여자의 장식은 특별히 눈을 놀라게 한다(아시아의 파사)."와 같이 국민성이나 복식 등을 서술하기도 하며, "인민은 전부 무역과 목축업을 하며, 풍속이 질박온후하고 협동하는 힘이.....(유럽의 화란)"과 같이 국민들이 종사하는 산업이나 국민성을 서술하기도 한다. 또한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일부 지역에서 인민(人民)이나 토인(土人)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즉, "...토인은 이어져 오길 문벌을 구별하여 귀천이 서로 다르고...가장 기괴한 일은 한 가정에서 남편이 병사하면, 그 부인도 함께 불에 타 죽는 관습이 있고.....(인도)"와 같이 원주민의 신분제도나 관습 혹은 "토인의 대개는 흑색인종이 분포하고, 그 다수가 부락이 되고.....(아프리카주 총론)"과 같이 인종을 서술한다. 지역에 따라 적절한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그 지역의 실상과 특성을 서술한 것이다.
- 표 2, 3, 4에서 한문으로 서술된 지명은 한글로 서술하고, 현재 지명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 ) 안에 우리말을 병기하거나 '·'의 기호 다음에 현재 지명을 추가하여 서술한다. 밑줄로 표시된 한글 지명은 본문에 한글로 서술된 주요 지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11) 총론을 포함한 전체 84페이지 중에서 유럽이 21페이지(약 25%)로 가장 비중이 높다. 아시아는 약

- 18.5페이지의 분량으로(약 22%), 아프리카는 11페이지(약 13%), 북아메리카는 13페이지(약 15%), 남아메리카는 12페이지(약 14%), 오세아니아는 5.5페이지(약 6.5%) 정도의 비중으로 서술되고 있다.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약 5.7페이지), 일본(약 4.3페이지), 미국(약 4페이지)의 순으로 높고, 다음으로 인도, 영국, 유럽러시아가 2페이지 정도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터키, 독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은 1.3~1.5페이지 정도이고, 나머지는 1페이지 이내이다.
- 12) 이는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벌인 청일전쟁의 뒤처리 결과로 중국의 영토인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할양 받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책의 내용은 1895년 당시 상황까지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중앙아메리카 6개국과 수도는 ① 과지마랍(과테말라)- 신과지마랍(신과테말라) ② 핑도랍사(온두라스)- 멩시팔파(태구시갈파) ③ 삼살와다(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산살바도르) ④ 니가랍과(니카라과)- 마병아(마나파) ⑤ 가사덕리가(코스타리카)- 산허자바(산호세) ⑥ 영령핑도랍사(벨리즈)- 베리즈(벨리즈/벨모판)이다.
- 14) 이 전쟁은 영어로 'War of the Pacific'으로 명명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촉발한 태평양전쟁(the Pacific War)과 구별하고 있는 '태평양전쟁(1879~1883)'이다. 이 전쟁은 칠레와 페루 볼리비아 3국이 아타카마 사막 일대의 자원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이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볼리비아는 칠레와 페루를 완벽히 가르며 태평양에 접해 있었다. 그런데 태평양에 면한 페루 남부에서 볼리비아 해안으로 이어지는 아타카마 사막에서 비료로 사용될 수 있는 구아노(guano)와 화약에 쓰이는 질산칼륨(조석·硝石)이 대량 매장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구아노는 바닷새의 배변물이 퇴적·경화돼 생겨난 천연비료로 '조분석(鳥糞石)'으로 불리기도 한다. 승전국 칠레는 볼리비아로부터 아타카마 사막을 빼앗고 영거주층하게 볼리비아를 지원한 페루로부터도 영토를 할양받았다. 그리고 페루의 수도를 함락하고 국보급 문화재도 약탈해갔다(신동아, 2012년 11월호 638호, pp. 442~450).
- 15) 남상준(1988)은 "이 책의 저자들은 '비전문적 지리학자'들로 지리학을 하나의 과학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국내나 국외의 문물을 쉽게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며, 몽매하던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 정도로써 충분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서술되는 국가나 지역의 양적인 측면을 평가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초등의 세계지리 영역은 물론 중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점에서 그 범위는 범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 16) 이에 대해 서태열(2013)은 '일본의 세계지리 관련 서적의 기술이 대부분 일제의 제국주의적 아시아관에 근거하여 아시아를 먼저 기술하는 지역기술구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일본의 영향도 분명



-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위치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세계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근대적 구성체계의 토대가 되었다.
- 17) 이와 함께 외국 지명의 한글 표기에 미친 일본의 영향도 나타난다. 즉, 『소학만국지지』의 외국 지명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음은 일본인이 번역·편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濠太利亞/濠洲(Australia), 北米合衆國(United States), 후로렌수(Florence), 지부라루다(Gibraltar Str.)와 같은 실제 지명의 표기에서 드러난다(이지영, 2008, 133).

## 문헌

- 강순돌, 2005, 애국계몽기 지식인의 지리학 이해: 1905~1910년의 학보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0(6), 595-612.
- 강재언, 1981, 한국의 개화사상, 비봉출판사.
- 강창숙, 2013, 개화기 세계지리 교과서 ‘만국지지(萬國地誌)’의 내용체계와 특징, *한국지역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집*, 107-109.
- 권정화, 2013, 험버트의 사민필지와 미국 선교지리의 굴절된 투영,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31-36.
- 권혁재, 1976, 지리학, *한국현대문화사대계 II*,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5-240.
- 김봉희, 2006, 개화기 번역서 연구, 『근대의 첫 경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영훈, 2010, 개화기 교과서 속의 세계와 역사: 만국지리(萬國地理)와 만국사(萬國史)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6(2), 5-30.
- 남상준, 1988, 개화기 근대교육제도와 지리교육, *지리교육논집*, 19, 99-111.
- 서태열, 2013, 개화기 학부발간 지리서적의 출판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분석, *사회과교육*, 52(1), 53-69.
- 안영진·김상빈, 2004, 근대 독일 지역지리학의 성립과 발달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3), 554-567.
- 이종국, 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지영, 2008, 개화기의 외국 지명 수용 과정: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세계지리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0, 129-155.
- 이찬, 1968, 이조말기의 지리학과 지리교육, *한국문화사대계 III*, 730-731.
- 장보용, 1970, 개화기의 지리교육, *지리학*, 5, 41-58.
- 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한울*.
- 홍순애, 2009, 근대계몽기 지리적 상상력과 서사적 재현, *현대소설연구*, 40, 359-380.
- 홍일식, 1977, 한국 개화사상의 연원고, *어문논집*, 19-20(1), 779-794.
- 신동아, 2012년 11월호(제638호).
- Mayhew, R. J., 2000, *Enlightenment Geography: the Political Languages of British Geography, 1650-1850*, Palgrave MacMillan.
- Withers, C. W., 2006, Eighteenth-Century Geography: Texts, Practices, Sit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6), 711-729.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http://e-kyujang.ggak.snu.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 <http://aks.ac.kr/>.

(접수: 2013.09.11, 수정: 2013.10.28, 채택: 2013.11.05)